

産業社會에 對處하는 公共圖書館의 機能 (完)

玄圭 變
國立中央圖書館

目 次

1. 序
2. 知識産業社會의 台頭
3. 韓國社會의 構造的 變化
4. 社會的 變動의 趨勢 (以上 前號계재)
5. 社會變動에 對應하는 公共圖書館의 機能
6. 結—戰略的 主要計劃의 必要性

5. 社會變動에 對應하는 公共圖書館의 機能

먼저 公共圖書館에 對한 既存의 數 많은 聲明書와 定義를 우리는 잠시 外面하자. 왜냐하면 이들은 具體的 이기보다는 包括的이며 戰略적이기 보다는 暗示적이기 때문에 問題의 解析을 어느 意味에서는 저해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實際로 前項들을 通하여 우리가 일별하여 왔던 急激한 變化들에 對하여 公共圖書館은 무엇을 하여 왔던가 하는 물음을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對答하여야 할까? 現實적으로 너무도 現격한 惡條件 때문에 그러한 變化는 고사하고 自體의 現狀維持도 급급하였다는 一般的인 解答(?)이 이를 正當化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까지 公共圖書館이 움직여 왔던 行動基準은 19世紀初 弟從圖書館(Apprentices Library)으로서의 大衆文化의 보급이라는 概念이 그 基本으로 되어 왔던 것이다. 이것은 當時의 歷史的 背景으로 보아 國民啓蒙이라는 社會的 要求의 한 表現으로서 그 時代性 및 經濟·文化性에 기초하고 있다. 韓國의 오늘이 그리고 지난 몇 년이 이時機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도 公共圖書館은 學校教育의 連結體, 또는 社會教育으로서의 한가지 手段 및 大衆啓蒙의 方便으로만 行爲하여 왔다. 이것은 그런대로 傳統性的인 問題와 관련하여 否定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지만 결코 進歩的인 것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우리는 公共圖書館의 機能을 教育이라는 包括的인 概念에서 社會變動의 積極的인 參與라는 具體的인 權

念으로 革新하여야 한다. 계몽적 기능에서만 공공도서관의 存在價値를 찾을 것이 아니라 社會成長에 有用한 機構로서의 機能에서 그 價値를 찾아야 한다. 이에 筆者는 다음의 몇가지 事項이 公共圖書館이 展開하여야 할 機能中的 最優先的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公共圖書館은 社會的 變動에 對한 具體的인 對應力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를 爲한 첫 課題는 奉仕概念의 革新이다. 筆者는 Ulveling, Ralph A.가 말한 處方的 奉仕(Prescription Service)란 用語를 使用코자 한다.¹³⁾ 이 用語는 網羅的인 奉仕라는 말에 對稱되는 것으로서 包括的인 것에서 必要不可缺한 現實的인 것으로 奉仕를 유도한다는 뜻으로 解析된다. 이 概念은 現代社會가 두가지의 特性 즉 스케일의 擴大性和 變化의 加速性으로 因하여 모든 分野가 극도로 細分化되고 그것들이 專門化됨으로서 社會는 各其 그 構成因子間的 獨自性을 主張하고 이들의 個別的 發展들을 추구하는데서 더욱 必要한 概念이 되고 있다. 情報라는 것도 이 個別性에 依하여 分割되고 細分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專門的인 分野에 個別的인 情報의 頒布 즉 有效情報의 分析과 配布는 時代的 要求라 하겠다. 이에 따라 有效情報를 組織的이며 効率的으로 순환시키는 奉仕의 具體的인 手段들을 반드시 發展시켜야한다. 處方的 奉仕란 개념은 이에서 비롯된다.

둘째로 公共圖書館이 展開하여야 할 機能은 社會的 要求의 明確한 把握과 그 對應力의 擴張이다. 前章의 첫 번째 특징이었던 人口分布의 變化에 對한 公共圖書館의 彈力的인 對應策이 이에 屬한다. 公共圖書館은 먼저 第3次 産業分野에 對한 集中的인 有效情報의 제공을 이룩하여야 한다. 점차 증대하여가는 이 部門은 크게 두가지로 區分될 수 있다.

그 첫째는 技術革新을 도모하여 가고 있는 頭腦集團(Think Tank)이다. 이들은 各企業과 研究所 또는 研究開發을 進擔하는 社會的組織 속에 散在되어 있다. 따라서 公共圖書館이 그 地域의 主導的인 産業部分의

13) Ulveling, Ralph A. 의 所見은 Mary Duncan Carter & Wallac John Bank. 3rd ed. Metuchen, The Scarecrow, 1969. p. 11. 참조

企業들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그들을 爲한 集中的인 處方的 奉仕를 實施함은 참으로 重要的인 일의 하나라 아니 할 수 없다.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 나라의 장기추세를 보면 앞으로 20年間に 機械工業分野와 섬유공업 및 화학공업 부문이 최소한 千倍以上의 擴張이 이룩될 것으로 展望된다. (表 13) 公共圖書館은 이러한 主題에 對한 보다 切實하고 積極的인 對應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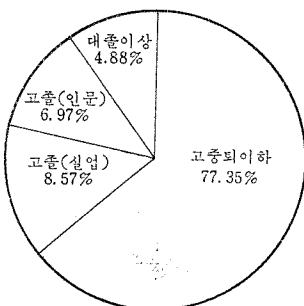
(表 13) 산업별 생산추세

산 업 부 면	1966	1986
1. 농 림 수 산 업	37.9	17.7
2. 예 너 지 업	1.9	5.4
3. 광·금 속 공 업	2.7	5.1
4. 기 계 공 업	1.8	6.5
5. 섬 유 공 업	4.9	4.5
6. 화 학 공 업	1.3	4.1
7. 기 타 제 조 업	8.4	15.2
8. 색 비 스 업	31.7	26.8
9. 건 설 업	3.8	6.7
10. 운 수 보 관 통 신	4.1	8.0

앞으로 더욱 增加될 部門의 다른 하나는(또 하나의 頭腦集團) 政府에 所屬되어 있는 各種 計劃部를 들 수 있다. 社會發展에 가장 核體的 役割을 하는 政府의 活動은 다른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特히 現代行政學과 經濟學의 發展은 知的 Technology를 通하여 文化의 發展을 人爲的으로 調整하러 한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情報의 充實한 分析에서 出發되는 것인 故로¹⁴⁾ 이 側面에 公共圖書館 機能의 한면을 조준하여야 한다.

세번째 公共圖書館이 遂行하여야 할 課題는(이번에는) 第二次産業에 從事하는 科學技術人力的 教育이다. 圖書館은 다만 資料의 利用處로서 보다는 直接 教育의 擔當者로서 活動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미국의 Cambridge Public Library의 例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⁵⁾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人力的 教育水準은 高校中退 以下의 水準이 77.35%에 達하고 있고 이들은 아마도 當분간은 進學의 機會가 없을 것이다. (表 14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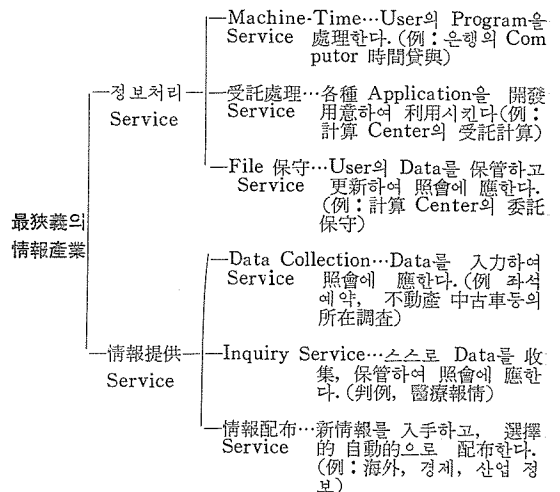
(表 14) 학력별 취업기술인력 구성비



먼저 이들의 職業的인 教育은 보다 좋은 技術을 爲하여 극히 필요한 일이다. 동시에 一般教育의 敎場으로 公共圖書館의 門戶를 열어 이들 二次産業에 종사하는 人力的 學校外의 教育을 擔當하여야 한다. 이것이 社會教育의 機能으로서의 公共圖書館이라는 진정한 의미(즉 협의의 의미)를 부여 받게하는 길인 것이다. 實際로 미국의 前記 例에서는 公認된 學校로 인정되고 있으며 名實 共히 市民大學 및 市民的 學校로 教育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다.

네번째로는 情報化되어가는 社會的 要素들에 對한 보다 積極적인 對策이다. 筆者는 現代圖書館은 複合미디어 圖書館(Multi-Media Library)이라는 概念으로 再組織되어야 함을 主張하여 왔다. 公共圖書館도 이에서 例外일 수 없다. 特히 시청각 자료들에 對한 보다 均衡있는 발전이 이룩되어야 한다. 예컨대 텔레비전은 다만 매스 미디어가 갖는 병폐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이들에 對한 교육 프로그램의 體系的인 整理를 시도한적이 있는가? 特히 시청각자료는 도서관의 한낱 장식물이 되고 있는 現狀의 개념적인 原因이 除去되어야 한다. ISBD(M)과 ISBD(S)와 ISBD(A-V)로 區別되어져 가고 있는 國際的인 추세에 우리는 시조받는 바 많아야 한다.

(表 15)



다섯 번째로 公共圖書館의 機能은 情報學的 技術의 導入에 依하여 多角的으로 展開되어야 한다. 特히 自覺하여야 할 것은 情報産業의 台頭이다. 이 情報産業은 그 범위가 雜多하여 單的으로 指目하기는 어려우나 最狹義의 情報産業은 表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限定지

14) 竹山正憲 ibid. p.54-60.

15) Cambridge Public Library에서는 Community Learning Center를 設置

울 수 있다. 이들은 情報라는 것을 主軸으로 企業化되어 있는 點, 그리고 機械化되어 있는 點, 극히 微視적이고 具體的이란 點이 特色이라 하겠다. 社會的 變化에 對應하는 公共圖書館의 機能은 이 세가지 特性이 부득이 反映되지 않으면 不될 것 같다. 말하자면 表(15)에서 보는 情報提供 서비스에 配布部頭에 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도 다른 企業들(장차에 있어서)과의 競爭속에서 體制의 개혁이 進行되지 않으면 不된다는 것이다.¹⁶⁾

6) 結 — 戰略的 主要計劃의 必要性

第5項에서 指適한 公共圖書館의 機能에 對한 要點은 産業社會의 變化에 對한 積極的이며 具體的인 對應力을 갖추어야 한다는 論點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勿論 이러한 機能의 展開가 傳統的인 도서관기능의 한 部分이며 전혀 새로운 것이 不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社會全般的인 變動의 特徵을 파악하고 그 장래를 展望하여 公共圖書館의 發展方向을 設定하여 간다는 試圖는 그것 自體로서 意義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處方的奉仕(Prescription Service), 頭腦集團(Think Tank)에 對한 有效情報의 提供, 職業 및 一般的인 敎育場으로서의 機能展開, 複合 미디어 圖書館으로서의 概念定立, 情報工學의 技術 및 情報産業으로서의 體制轉換 등 다섯 가지 事項은 公共圖書館이 적어도 앞으로 未來에 對하여 彈力的인 態勢를 가추는 限에 있어서 必須的으로 考慮되어야 할 事項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機能이 展開되려면 특히 韓國과 같은 어려운 與件下에서는 基本的으로 先行되어야 할 計劃的인 事項들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戰略的인 主要計劃이라는 強力한 表現을 써서 産業社會에 對處하기 爲한 具體的 實踐目標로 삼도록 한다.

첫째 公共圖書館은 全國的인 規模下에 細部的이고 地域的인 協同組織網(Network)을 形成하여야 한다. Ronald L. Wiginton이 主張하듯 現代圖書館에 있어서 는 무엇보다도 「蓄積된 資料의 共有概念이 強調되고 있다」 사실상 「現代의 圖書館이 自給自足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極히 드물다」¹⁷⁾ 따라서 公共圖書館의 第一次的 計劃의 하나는 協同인 것이다. 分擔收書를 비롯하여 主題奉仕 및 索引作成과 抄錄作成의 協同的인 相互分擔作業은 本質的으로 現代를 營爲하려는 圖書館의 必須的 條件인 것이다.

두번째로 情報處理方法의 새로운 試圖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圖書館이 主要對象으로 삼어 왔던 情報源에 對한 개념부터 情報分析과 組織 및 分布方式에 이르는 多角的인 面에서 그 改善과 全面的인 再組織이 必要하다. Kilgur, Frederick G.도 말하였듯이 「過去 百年間 圖書館界가 行하여 왔던 일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奉仕機能으로서 이 方式으로는 도저히 現代가 要求하는 것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만일 圖書館이 現在의 奉仕體制를 그대로 지속한다면 時代的要求와의 간격은 더욱 더 커져갈 것임이 分明하다」¹⁸⁾.

세번째로 計劃되어야 할 重要한 課題의 하나는 情報産業의 台頭に 對備할 強力한 組織體의 結成이다. 美國의 Ohio College Library Centre 가 이에 합당한 一例가 될 것이다. Ohio州의 各級 圖書館 54개관이 참가하여 조직한 이 단체는 情報를 加工하고 處理하는 非營利法人으로서 정보처리 的인 自動化計劃을 財務上의 難點을 극복하여 効果的으로 遂行하여온 미국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는 事例이다.¹⁹⁾ 우리 나라에 있어서 특히 公共圖書館은 情報處理의 보다 効果的인 處理와 分布를 爲하여 이와 같은 組織體를 形成하여 나아감은 앞으로 尙 社會의 要求를 爲하여 매우 必要한 일의 하나라 하겠다. 말하자면 한 圖書館을 中心으로 여러 圖書館이 結合하여 獨立된 法人 形式의 情報센터를 設置하여 會員別 方式으로 運營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展開하였던 事項들은 그 提示點 自體가 現 與件으로 보아 實踐的인 것이 아닌 抽象的이고 理想的인 것으로 생각되어 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筆者의 所見으로는 이들은 결코 實現不可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公共圖書館人의 意志에 左右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歷史는 어떠한 靚린지 (Challenge)에 對하여서도 이를 극복할 創造的 對應을 要求하여 왔던 것이며 지금의 우리가 바로 創造的 對應을 開始하여야 할 時點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16) 島失志郎. 情報産業. 東京, 日本經山新聞社, 1970. pp. 97. 101參照

17) Ronald L. Wiginton & James L. Wood. Standardization requirement of national program for information transfer Library Trend 8(4) Apr. 1970. pp. 432-47.

18) Kilgur, Fredrick G. A Regional network. Datamation, Feb., 1970. p. 87-89.

19) 현규섭, 美國文獻情報活動의 近況, 그 事例를 중심으로. 도서관 27(8) pp. 13-16.